

2019학년도 하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9. 6. 22. ~ 7. 19.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파견 대학 위치 : 저희 이번 순천향 기수는 타 대학 인원 수용 인원 문제, 지속적으로 물이 새는 문제로 인해 1주일 동안은 필리핀 수빅에 위치해 있는 SLC 센터로 파견이 되어 생활을 하다가 나머지 기간은 Subic Holiday Villa로 건물을 이전하여 1대1 강의실과 그룹 클래스 교실을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 놓은 후 3주간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설은 매우 깔끔하였으며, 매우 만족하였습니다.</p> <p>규모 및 시설 : 원래 SLC센터는 5층 건물로 1층은 빨래, 식당, 교실, 교직원공간 2층은 교무실 3층~5층은 기숙사, 교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SLC센터는 지금은 시설 수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들었으니 다음 기수들이 가실 때에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생활했던 Subic Holiday Villa는 호텔식 구조였습니다. 앞에 넓은 수영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임시로 빌린 시설 인 탓에 수업을 받는 공간과 기숙사는 다른 건물을 사용하였습니다. 한 건물은 카페테리아(식당), 교직원 공간, 1대 1수업 받는 공간, 그룹 클래스 공간, 교무실로 이루어져있었고 바로 옆 건물은 저희 숙소였습니다. 저희 학교끼리는 같은 층을 사용하였습니다.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다면, 임시로 급하게 건물을 빌려서 수업에 차질이 없게 공간을 마련한 탓에 그룹 클래스 시간에는 옆 그룹의 수업 내용이 들릴 정도로 방음 문제가 살짝 부족하였습니다.</p> <p>전체적인 분위기 : 이번 저희 기수는 SLC센터에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임시로 대여한 Subic Holiday Villa에서 생활을 하였기에 시설은 굉장히 깔끔하였고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도 없었고 벌레도 거의 없었고 냉방 시설도 아주 잘 갖추어져있었고, 2틀에 한 번씩 룸 클린 서비스도 진행해주었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SLC센터가 수리가 다 완료가 되면 좋은 시설이라고 들었습니다.</p>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수업 내용 · 수업 방법 · 과제 : 저희 학교는 4주간 단기어학연수로 TOEIC을 다루게 됩니다. 책은 총 5권으로 첫 번째로 TOEIC SPEAKING 하루에 2시간 수업을 듣습니다. 해커스 어학원에서 출판한 교재를 주로 삼아 player랑 같이 병행하며 각 part별 skill과 시험에 응하는 방법 등을 설명해주시고 part가 끝나는 동시에 1명씩 Mock Test도 봄으로써 Feedback도 해주시고 주기적으로 보는 위 시험은 마지막 평가에 반영이 되기에 성실히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Vocabulary 이 수업은 도착하고 그 다음날 시험을 보는데 그룹 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단어 책을 수준 별로 배정해 나누어 줍니다. 이에 이 책은 사람마다 받게 되는 책이 다르게 됩니다. 세 번째로 Reading 특정한 주제를 갖고 여러 문단으로 구성이 된 이야기, 화제 글을 읽고 개인 선생님이 던지시는 질문에 응하고 뒷장에 이어지는 문제들을 푸는 수업입니다. 이 두 개의 수업은 1대 1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1대1 선생님들마다 진행하시는 수업 방식이 다 상이합니다. 저 같은 경우 단어 수업 같은 경우 영영 풀이를 선생님께 영어 문장으로 설명 드리고 모르는 단어는 질문을 드린 다음에 뒤에 문제 까지 풀고 채점까지 50분 내에 끝냈습니다. 리딩 수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내용을 영어로 설명 한 다음에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고 뒤에 이어지는 문제까지 50분 내에 끝냈습니다. 수업시간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하면 남은 부분은 마무리를 해오라고 과제를 내주십니다. 따라서 과제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Multi Media Class(MMC)로 특정한 주제를 갖고 1달간 같은 그룹 멤버끼리 동영상을 찍어 졸업식 전 날 발표회를 갖습니다. 음악 장르를 하나 무작위로 선정을 하여 뮤직비디오 1편과, Commercial 광고 1편을 찍게 됩니다. 이번 저희 기수는 Rock Music과 밀크티를 찍었습니다. 편집할 때 노트북이 필요하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Face-To-Face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고 리딩 수업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고 부가적으로 문법을 다루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3시부터 5시 2시간 동안은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하여 Activity활동을 합니다. 서로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Fun-Friday로 특정한 컨셉을 갖고 각자 수업에 들어오기 전 준비를 합니다. 저희는 Minion Day(노란색, 파란색 옷 입기), Crazy Glass Day(독특하고 특별한 안경, 선글라스 쓰기), Striped Day(줄무늬 옷 입기)를 하였습니다. 이 컨셉도 역시 미리 공지를 해주시고, 매번 컨셉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사 · 수업준비 : 그룹 선생님들을 포함하여 1대 1선생님 SLC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수업 5분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신 후 저희를 맞이해주시고 수업 전 날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해오십니다. SLC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시기에 모든지 적극적이시고 저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각 학생들 별 수준을 고려하여 선생님도 레벨테스트 결과를 고려 후 잘 배정을 해주십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주일 안에 선생님을 변경할 수

	<p>있습니다. 하지만 그룹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선생님들이 저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친근하게 다가와 주신 덕분에 재밌게 수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도 많이 가고 헤어질 때 많이 아쉬웠습니다.</p>
필드트립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p> <p>매주 토요일 마다 저희 학교끼리 토요 Activity활동을 나갑니다. 우선 Activity를 소개하기 전 첫 날은 레벨테스트를 보고 오후에는 환전, 유심 칩교환 등을 할 수 있고 저희가 한 달 동안 주로 나가게 될 중심지 마트 (Harbor Point, SM Mall)을 중심으로 수빅 투어를 합니다. 첫째 주 Activity는 금요일 오후에는 Clark SM Mall로 가 쇼핑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주 토요일은 Bataan White Corals Beach Resort에 가서 수영을 하였습니다. 앞에 바닷가도 있었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서 통제 되었고 풀 안에서만 수영을 하였습니다. 사진 찍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둘째 주 주말에는 2차 세계대전의 아픈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곳, 필리핀 Bataan에 위치한 MT. Samat유적지에 다녀왔습니다. 정상에 올라서니 Balanga, Limay, Orion 등 Bataan반도의 여러 도시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정상에는 카메라 한 장에도 담기 힘든 100M 높이의 기둥의 십자가가 있고 밑등에는 역사적 상징을 부조로 장식해놓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필리핀 군인들과 미국 군인들을 위한 위령탑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기둥 안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서 금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유적지를 선생님들과 함께 오니 정말 뜻깊었고 경치도 좋고 사진 찍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마지막 주 주말 토요일은 요트 체험을 하였습니다. 숙소에서 10분 내외에 있어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전 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주말 활동이 취소될까 걱정을 다들 많이 하였지만 다행이도 그 다음날 아침 날씨가 매우 좋아 약 2시간 정도 요트를 탔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희망한다면 구명조끼를 입고 다이빙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찍기 매우 좋고 뜻깊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체험이었고 돌아오면서도 다들 다시 한 번 타고 싶다고 하는 체험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았더라면 주말 활동을 할 수 없는데, 저희 이번 순천향 기수는 토요일 활동을 아무 사고 없이 알찬 활동으로 모두 참여를 하였습니다. 알찬 토요일 활동을 계획해주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인솔해주신 저희 학교 담당 Buddy Teacher들 덕분에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따로 토요일 활동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토요일 활동은 거의 매번 바뀌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물은 각 활동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미리 알려주시는데 날씨가 더운 탓에 선크림 준비하시고 수영복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	-----------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습한 기후가 딱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루 이를 지나다보면 금방 적응하게 되어있습니다. 비는 내렸다 그쳤다 반복을 자주 하였습니다. 우산은 한 개 챙겨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린다면 건물 안으로 잠깐 들어가 있으면 금방 그칩니다. 숙소 내에서는 냉방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1대1 수업장소를 비롯하여 그룹강의실은 쌀쌀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니 겉옷을 하나 챙기시면 좋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필리핀 수빅은 Freeport Zone이기에 매우 안전합니다. 치안도 심하지 않습니다. 4주간 저희 기수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본인이 가져온 돈을 비롯한 귀중품들은 캐리어 안에 보관을 각자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밖에 돌아다니실 때 저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돈이랑 필요한 것만 넣을 수 있는 조그마한 크로스백을 항상 앞으로 매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낮선 해외이다 보니 여러 명에서 다니시는 게 안전합니다.</p>
숙소	<p>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p> <p>앞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지만 숙소 시설은 굉장히 만족하였습니다. 월~목, 일요일은 통금시간은 10시, 금요일, 토요일은 통금시간이 12시입니다. 통금시간에 대해서는 모든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교수님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시기에 철저히 숙지하시고 지켜셔야 합니다.</p>
식사	<p>학교식당 (0) 외부식당 (0) 기타 (배달)</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침은 주로 간단하게 요기를 채울 수 있게 소시지, 팬케이크, 에그스크램블, 토스트, 수프, 과일 등이 나옵니다. 본인이 먹고 싶을 때 시간에 맞추어 먹으면 됩니다. 음식 조리해주는 분이 매우 요리를 잘 해주셨기에 매 식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식도 나오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생활이 적응되고 1주일이 지나면, 저녁은 선생님들이 추천해주는 식당에 나가서 먹었습니다. 가격도 비싼 편은 아니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음식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기에 많이 짭니다. 음식을 주문하기 전 'Less Salty'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숙소 내에 피자, 치킨, 스파게티, 라자냐 등도 배달이 됩니다.</p>
교통	<p> 시내교통 관련</p> <p>중심지까지 걸어갈 거리가 아니기에 거의 매일 택시를 탔습니다. 1택시에 최대 6명씩 탈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탈 때 가격을 절대 물어보지 마시고 거리에 따라, 탄 인원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간다면 도착 후 100페소를 먼저 건내고 추후에 최대 50페소만 더 내시기 바랍니다. 200이상페소는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685,000원	
보험료	28,590원	
공항세	12,600(600폐소)	출국 전 주에 학생대표가 견음
기타 개인 용돈	800,000원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저는 가기 전 폐소와 달러를 따로 가져갔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환전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분류를 해서 가져가니 각 주별로 얼마큼 돈을 쓸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돈 관리하기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모기약을 비롯한 소화제 등 본인에게 필요한 약들은 한국에서 미리 구비를 하신 후에 갖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한 달 프로그램이 끝나면 각자 담당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저는 가기 전에 이 후기를 읽고 가서 한국에 있는 선물들을 사갔습니다. 가시기 전에 한국에만 있는 것들을 선물로 챙겨 가신다면 나중에 선물 챙길 시간은 따로 필요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예쁜 편지지랑 봉투는 필리핀 수빅에 없었습니다. 출국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날씨 탓에 굳이 운동을 챙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소 앞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 피곤한 날은 밤에 삼삼오오 모여 수영을 합니다. 그러기에 필수로 수영복은 챙기셔야 합니다. 날씨가 더우니 팔토시도 챙겨 가시면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 1달이 지나면 짐이 많아지기 일수이기에 필요로 한 것들로만 짐을 최소화하여 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돈을 굉장히 여유 있게 가져갔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주가 되면 각종 기념품을 사느라 돈이 부족했습니다.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물갈이를 하였는데요, 식당에서는 대부분 수돗물을 줍니다. 이에 그냥 따로 음료를 하나 시키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마실 생수는 직접 구입해서 마시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에 설사약이나 복통약도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은 수기 뿐 만이 아니라 같이 다녀온 기수 분들의 수기도 꼼꼼히 읽으신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 두 차례에 걸쳐서 OT도 진행하니 그 시간을 이용하여 질문사항이나 준비할 것들이 있으시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정말 막연하게 숫자로만 본다면 익숙하지 않은 동남아 외국에서의 1달이라는 생활은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좋은 취지로 신청한 단기어학연수 였지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걱정일 뿐이었습니다. 같이 간 형, 누나들 하나 같이 다들 너무 서로를 잘 챙겨주셨고 좋은 선배들과 같이 가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었고 너무나도 돈독한 우정을 만들어왔기에 소중한 사이들이 되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저희 학교 담당 Buddy 선생님을 신경써주셔서 배정해 주신 덕분에 너무나도 좋으신 두 분과 4주동안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어 너무나도 좋았고, 두 명 선생님을 비롯하여 SLC의 모든 선생님들과도 짧은 시간 안에 금세 정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지금도 역시 Facebook, Instagram을 통하여 서로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 받고 있습니다. 남들보다는 조금 부지런하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단기어학연수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신청한 결과 저에게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1달간의 소중한 기억들과 경험들과 기억들을 필리핀 수빅에서 만들고 왔습니다. 종강하고부터 아직은 1학년인지 탓에 시간적으로도 정말 여유가 많았었는데 이 시기를 이용하여 시간을 정말 유익하게 사용한 것 같아 정말 뿌듯합니다. 졸업식이 다가올 때 즈음, 모두가 이별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정말 서로들 많이 아쉬워하였습니다. 1달간 짧게 단기어학연수를 다녀왔다 하여서 눈에 띄게 영어 실력이 월등히 향상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영어 말하는 것에 자신감이 없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이 프로그램은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어리숙하고, 많이 부족해보이고 영성할지는 몰라도 차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벽함을 추구하면 모르겠지만 자신감 하나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저의 영어 실력보다는 가족과 떨어져 1달간 외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소중한였고 자립심도 키울 수 있었고 같이 갔었던 저를 포함한 25명이 너무나도 좋은 기억들을 만들고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비슷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꾸준히 어학공부도 진행해 나아갈 것이며,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지만 교환학생준비도 차차 진행할 것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Subic Tour



Saturday Activity(Mount Samat)



숙소(Subic Holiday Villa)



Harbor Point에서 저녁



Saturday Activity(Yacht Tour)



Graduation Day